



우리나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현황

I. 환경문제의 원인

역사적으로 인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그 터전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환경을 잘 가꾸고 현명하게 이용한 국민은 반드시 번영했다.

그러나 근대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공업화와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인간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자구책 마련에 부심함은 물론 세계가 공동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고자 1972년에는 UN의 주도하에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차례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되는 등 인류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조일성/본협회 홍보부장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초 절대빈곤에서의 탈피를 지상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성공적인 경제개발 시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화와 더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의 팽창을 가져왔고 환경문제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의 팽창을 가져왔고
환경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은
급속히 오염되고 자연환경은 훼손돼 왔다.**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은 급속히 오염되고 자연환경은 훼손돼 왔다.

주로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요인은 4가지 요인으로 축소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에 2천 5백만이던 인구가 '86년에는 4천 2백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필품, 생활공간, 교실, 병원, 교통수단, 공공시설, 농업생산과 수출입 등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끔 되었다.

또한 생산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자원의 소비는 더욱 많아진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의 증가는 자원사용의 증대로 인한 각종 폐기물의 증가, 기타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를 수반하게 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도시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70년대에는 50% 수준이던 것이 '86년에는 75%, 2천년대에는 83%에 다다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시급한 것이다. 이는 밀집된 도시일수록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동반되고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자연 및 인공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세째는 경제개발에 의한 공업화 현상이다.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개발, 국토구조와 토지형태의 변경, 경제발전 강화로 인한 기존질서와 새로운 질서간의 마찰, 물질위주의 가치구조, 빈부격차 심화, 인간자연성의 소멸 등이 사고와 행동의 기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

키게 된다. 이런 제문제는 환경문제로 환류되어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자원의 감소는 다시 경제개발을 위축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네째는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기술혁신은 생산물의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창출시킨다. 합성유기화학 등 화학물질의 개발은 경제성장이나 소비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합성유기화학제품의 생산량 증가는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유기합성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시약, 중간물질 등 독성의 화학물질이나 살충 및 제초를 위하여 사용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은 환경파괴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대기·토양·하천·해양 등에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환경시책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간의 환경보전시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개발이 한창인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된 다음해인 '63년 11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해방지법이 제정됐고, '67년에는 보건 사회부의 환경위생과의 공해계가 신설, '70년 2월 환경위생과가 차관직속 관리관으로 되면서 그

소속하에 공해담당관을 두게 됐다.

'73년에는 차관직속 위생관리관을 위생국으로 개편, 공해과를 신설했고, '75년에는 다시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하의 공해과는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각각 분리 개편함과 동시에, 공해문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환경위생국장을 보좌하도록 공해관리관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다시 '77년 3월에는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해관리관을 환경위생국으로부터 분리, 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그 밑에 환경기획담당, 대기보전담당, 수질보전담당 등 3명의 담당관을 두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환경청을 설립, 각종 환경관계법령을 정비하면서 주요도시의 대기질개선대책, 전국 하천의 정화사업,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대책 등 본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7년에 2천년대를 향한 환경보전 장기종합대

책이 성안됐다. 이 환경보전 장기종합대책은 쾌적한 환경조성유지를 위해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는 현행 환경기준보다 훨씬 강화되는 기준이내의 환경질을 유지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목표아래 '87~2001년간 총 17조 846억원(공공 8조 7천 900억원, 민간 8조 2천 946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투자규모는 동 계획기간 GNP의 0.93%에 해당한다.

환경부문 투자규모는 정부의 환경보전정책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나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제성장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초기단계인 5차 5개년 계획기간 이전에는 GNP 대비 0.03%~0.05%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었으나, '8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부가 형성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인해 공업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부문의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방지사설업 등록현황

'89년 1월 말 현재

구분	계	환경(종합)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지칭별					
계	392	165	102	112	13
서울	266	119	71	63	13
부산	44	18	13	13	-
대구	35	11	10	14	-
광주	25	11	2	12	-
대전	18	4	5	9	-
원주	4	2	1	1	-

연도별 공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80	'81	'82	'83	'84	'85	'86	'87	'88
계	43,881	41,787	56,288	64,230	97,742	131,065	172,899	207,289	388,300
국 내	43,602	41,747	55,807	64,141	97,105	114,707	170,759	188,530	288,700
국 외	279	40	481	89	637	16,358	2,131	18,759	98,500

Ⅲ. 88 년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현황

환경관련산업은 우리의 모든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최일선을 담당해 그 효과가 곧바로 우리 모두의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수어진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관련산업체중 방지시설업체의 경우 각 환경지청에 등록된 업체는 '80년 160개 업소에서 '89년1월말 현재 392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방지시설공사실적도 '80년 439억원에서 '88년도 중 완공된 공사규모는 모두 3천 4백 64건에 3천 8백 83억원으로 '87년의 2천 73억원에 비해 86.8%나 증가했다.

이처럼 방지시설공사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동안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배출부과금 부과증가('87년 30억원, '88년 89억원) 및 홍보제도로 기업주의 환경보전 인식수준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공사건수는 '8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0.6% 증가)이면서도 건당 공사금액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방지시설투자가 더욱 내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지시설 분야별로는 수질분야가 9백 54건에 2천 7백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대기분야는 2천 1백 71건(28%), 소음·진동분야는 3백 39건에 89억원에 이른다.

한편, 업종별 공사실적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체(종합)가 1천 8백 34건에 3천 27억원,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체가 1천 1백 64건에 5백 28억원이며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가 3백 61건에 2백 73억원, 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가 1백 5건에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년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규모도 8백 64건으로 3천 9백 48억원에 달하고 있어 '89년의 공사실적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환경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각종 환경오염방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방지시설업체 등 환경관련업계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앞으로의 정부시책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은 타업종에 비해 정부의 시책에 많은 영향이 따른다.

그것은 각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자발적으로 앞장서 하기 보다는 법의 한도내에서 처리하려는 소극적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방지시설업은 무엇보다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청이 환경관련산업체의 기술향상과 신기술개발을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 추진중인데 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산업의 건전육성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환경오염방지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개최, 방지시설업체의 기술수준향상을 꾀하고 각종 환경오염방지기술정보를 데이터뱅크화해 관련업체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며, 환경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는 정부의 경제자유화 및 경쟁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업계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나 방지시설업 등록기준 등 일부 현실화를 요하는 각종 규제규정을 재검토,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현재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자금의 융자, 환경오염방지기기의 수입관세감면, 기업의 환경투자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처리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업계의 오염방지기술 개발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시책과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면, 방지시설업체 등 환경관련업체는 현재의 기술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선진기술의 소화(消化),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환경관련 건설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